

임실 귀농귀촌 '주거·영농 원스톱' 모델 가동

스마트팜 10동 1:1 연계 정착 지원
가족형 주택 최대 3년 거주
4월 중 공고 5월부터 순차 입주
정착 초기 주거 부담 실질적 해소

전북특별자치도와 임실군은 지난 20일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심민 임실군수, 박정규 도의원, 귀농귀촌협의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총 51억 원(도비 18억 원, 군비 33억 원)을 투입해 단독주택형 임시거주시설 10호 규모로 조성됐다. 각 주택은 약 19평형으로 가족 단위 입주가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실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준공식 전북도와 임실군은 지난 20일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에서 김종훈 전북도 부지사와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준공식을 열었다. <사진=전북자치도>

임실군은 4월 중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선정 절차를 거쳐 5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통해 입주자는 초기 주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제 농업 현장에서 영농 기술을 익히고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기존 귀농귀촌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주거 확보와 영농 경험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도내 26개소의 임시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귀농귀촌 지원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귀농인의 집', '전북에서 살아보기', 유휴 시설 활용 사업 등 다양한 정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임시거주시설과 스마트팜을 연계한 이번 모델은 귀농귀촌 정착의 실질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정읍 지향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조선시대 전통법·구증구포 계승
전국 20호... 3년 14억 투입 보전·활용 추진

전북도는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정읍 지향 농업시스템'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지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지역의 환경과 사회, 풍습에 적응하며 형성된 전통 농업자원을 국가가 지정·보전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 이후 이번 정읍 지향을 포함해 전국 20개소가 지정됐다.

전북은 이번 지정으로 부안 양잠농업시스템,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에 이어 총 3개소를 보유하게 됐다.

정읍 지향 농업시스템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재배 역사와 전통 농법,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의 긴밀한 연계성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벼짚을 활용

한 종근 소독 ▲토양 회복을 위한 윤작 농법 ▲아홉 번 찌고 말리는 '구증구포' 전통 제조기술 등 고유 농업기술이 현재까지 유지·전승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또 옹동·칠보면을 중심으로 생산된 지향을 전량 수매해 가공·유통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농업유산이 단순 보전을 넘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지정은 지역 주민과 재배 농가, 행정이 협력해 준비한 결과로, 치열한 경쟁을 거쳐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단독 선정됐다.

도는 이번 지정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총 14억 원(국비 10억 원 포함)을 투입해 농업유산 보전과 활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 농업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자원 조사, 산업화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정읍 지향 농업시스템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는 오는 26일 정읍시 운동전통문화생활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道, 익산·완주 산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투기 차단·사업 안정 추진 기반 확보
익산 일부 축소... 완주 면적 유지
규제 공백 없이 연속성 확보 조치

전북도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후보지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2년 연장 지정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정을 확정했다.

이달 국토교통부와 익산시에 허가구역 지정을 통지했으며, 20일 관보·공보 게재를 통해 공식 공고됐다.

이번 연장 지정은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8년 3월 25일까지 유효하다. 두 구역 모두 2023년 3월 26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돼 온 곳으로, 이번 결정으로 규제 공백 없이 연속성이 유지된다.

먼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후보지(왕궁면 발산리·평장리·흥암리 일원)는 연장 지정을 통해 면적이 일부 조정됐다. 기존 약 206만 6,000㎡에서 약 173만 2,000㎡로 축소됐으며, 줄어든 33만 4,000㎡는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성 및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14개 신규

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익산 사업 일정이 지연된 점과 오포·근남마을 주민의 재산권 행사 보호 필요성을 면적 조정의 주된 이유로 설명했다.

또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봉동읍 구암리·둔산리·장구리 일원)는 기존과 동일한 165만㎡ 면적으로 2년 연장 지정됐다. 완주 산단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면적 변경 없이 현행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은 지역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도시지역 외 보전지역에 속하는 익산 지정구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거래 시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인 완주 지정구역은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에서 60㎡, 상업·공업지역에서 150㎡, 녹지지역에서 20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완주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연장 지정은 사업 예정지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장경태 '제명급 중징계'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위원을 낸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장경태 의원은 이날 새벽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의견을 내자, 민주당 탈당하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이 이날 오전 탈당계를 제출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탈당으로 인해 정계가 어려워졌으나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우우 당 법률위원장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 개시 이후 탈당 하더라도 '회피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면서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윤리심판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혼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김영목기자

SeAH Besteel

국내 1위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수강 전문 기업-세아베스틸
이제, 세계 최고의 특수강 메이커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Born to be Special

전북도, 사료구매자금 1564억 '전국 최대' 지원

전국 물량 17.7%...최대 규모 확보
사료비 상승 대응 농가 부담 완화
금리 1.8%·최대 9억 한도 지원
이자차액 추가...금융부담 경감

전북도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사료구매 정책자금 1,564억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는 전국 상반기 사료구매 정책자금 8,800억 원 중 17.7%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번 지원은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사료가격이 상승하면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추진된다.
지원 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 대금

과 기존 고금리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 조건은 용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이다.
지원 한도는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 농가는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암소비육지원사업,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와 구제역·AI·ASF 예방적 살처분 피해 농가 등 정부 정책 참여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읍·면·동)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선정된 농가는 지역 농·축협을 통해 6월 17일까지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도는 2025년도 사료구매자금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축종과 사육 규모에 따라 0.4~1.8% 수준의 이자차액을 추가 지원하고, 농립수산발전기금과 연계해 농가의 금융 부담을 한층 완화할 계획



<사진=전북도>

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사료가격이 오르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재생에너지로 가구당 천만원 지급"

햇빛·바람 연금 배당경제 전환
농어촌·예술인 기본소득 확대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후보인 이원택 의원은 지난 20일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가구당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연금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어 지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때"라면서 이같은 도민 소득 증대 정책을 밝혔다.
이어 "햇빛·바람 연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창작 기본소득을 가지고 기존 성장 중심 정책에서 배당 경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어민의 어려움과 청년 취업난, 양육·부양 부담을 언급하며 "막대한 성장 중심 정책이 아닌 도민의 지갑에 직접 돈이 들어가서 도민이 체감해야 진짜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북을 호주, 독일, 덴마크 모델을 뛰어넘는 '배당형 경제 구조'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해 가구당 연간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햇빛·바람 연금'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북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목표를 11GW로 상향한 바 있다"며 "이를 오는 2040년까지 30GW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 개발 수익을 기금화 해서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권

역부터 배당을 시작하고, 이후 나머지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지급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전북의 뿌리이자 식량 안보의 최후 보루인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들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도내에 현재 2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마을을 2단계로 군 단위 지역으로 과감히 넓히고, 3단계로 도내 전역의 농어촌으로 확대해 농촌의 붕괴를 막고,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이재명 정부가 전국 1만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을 도내 2,000곳 이상에서 추진함으로써 지방 소멸을 최전선에서 막아 내겠다는 게 이 의원의 구상이다.

그는 전통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예방의 도시, 전북에서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있는 문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 기본소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우선 1,000여 명의 예술인을 상대로 '창작 기본소득'을 즉시 지급하고, 이를 전체 예술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문화와 예술이 밤 먹여주는 넉넉한 창작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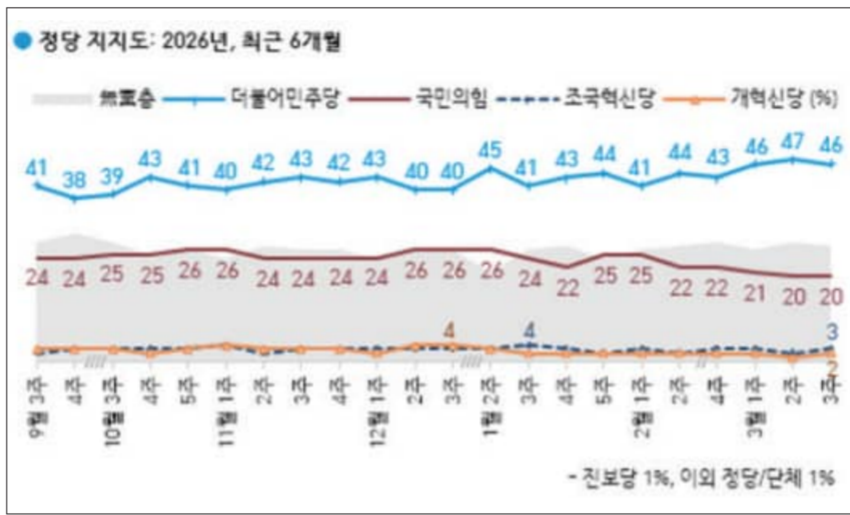
이 의원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민주 46%·국힘 20%...지지율 격차 26%p 확대

5주째 20%p 이상 격차 유지
전 연령대·대부분 지역 민주 우세
李大통령 국정 긍정 67% '최고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지난 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더 벌어졌음을 크게 넘은 26%p를 기록했다.
2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인터뷰 방식으로 정당 지지도를 묻은 결과,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0%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5주차 더블스코어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주차 조사에서 민주당 44%, 국민의힘 22%로 격차가 처음으로 더블스코어를 기록한 뒤 격차가 점점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작년 8월 중순부터 민주당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이

어졌으나 최근 한 달여 사이 양당 격차가 더 벌어진 모습이다. 다만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격차는 27%p에서 26%p로 소폭 줄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8%가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47%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 12%, 무당층 3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 다만 TK에서는 민주당 29%, 국민의힘 28%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전 연령대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았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도 민주당 44%, 국민의힘보다 12%p 높았다.
이와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묻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67%가 긍정 평가했고 25%는 부정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평가가 직전보다 1p 올랐으며 이는 취임 후 최고치이다.



<전북타임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에서 각각 94%, '잘 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66%)과 보수층(52%)에 많다. 중도층은 72%가 긍정적, 19%가 부정적으로 봤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1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서울=김영목기자

도, 곰소만 첫새우 '맞춤 어구' 개발 어가소득 길 열었다

첫새우 전용 '새우틀방' 개발 성과
평균 2천만원 어획...경제성 입증

전북도가 곰소만 연안 첫새우 자원에 최적화된 포획 어구·어법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경제성까지 확인하며 어업인 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20일 부안군청에서 '곰소만 연안 첫새우 자원조사 및 포획 어구·어법 개발 연구어업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개발 성과와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 성과는 첫새우 포획에 특화된 신규 어구·어법(가칭 '새우틀방') 개발이다. 해당 어구는 표층 예망식 빗돌 형태를 설계해 기존 방식 대비 효율적인 포획이 가능하도록 고안했다.
그동안 곰소만 해역은 첫새우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적합한 어구·어법이 없어 어업인 소득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연구어업을 추진해 현장 맞춤형 포획 기술 개발에 나섰으며, 과학적 자원조사와 실제 조업을 병행해 실효성을 검증해왔다.
연구는 곰소만 부근 해역 1,470ha, 13개 정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고창·부안 어선 32척이 참여해 7월부터



<사진=전북도>

9월까지 어장환경 조사와 어획통계 조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자원량 데이터와 조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축적했다.
특히 첫새우 주 조업 시기인 7~8월에는 연구어업 참여 어선 1척당 평균 2천만 원 이상의 어획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어구·어법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이 확인됐다. 곰소만 연안의 첫새우 연평균 포획량도 약 110톤 수준으로 조사됐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곰소만 연안 첫새우는 지역 어업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인 만큼, 그 가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어구·어법의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새학기맞아대학순회 소비자피해예방상담실운영

전북도가 새학기를 맞아 대학생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대학 순회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이동상담실은 오늘 전주대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11개 대학을 순회하며 운영되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담실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운영되며, 방문판매·불법 피라미드·인터넷 쇼핑물 피해 등 주요 사례 안내와 함께 현장 상담을 지원한다.
최근 청년층 소비자 피해는 증가 추세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내 20대 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5,767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4.5%(344건)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모바일 거래를 중심으로 상담이 늘어나며 통신판매 관련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 판매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방문·전화권유·노상판매 상담은 전년 대비 86.2% 늘었고, 이 중 방문판매는 112.9% 증가했다. 주요 피해 품목은 스마트폰, 헬스장,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인터넷교육서비스 등이다.
강미순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신학기가 되면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상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예방부터 피해 대처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 피해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은퇴는 안정되게 노후는 두텁게!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원내용

- ① 매도(분할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매월 50만원 지급
- ② 매도(일시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50만 x 지급기간 x 지급율
* 경지해농농지 1,000㎡ 미만으로 기입, 지급 기간별 최대 30% 차감
- ③ 매도 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 지원 방법별 장차 해농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의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 후 지원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지원요건

약정체결 연도 기준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지급대상농지

3년 이상 소유 중인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

사업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 | 문의 063-650-7034

디지털 산업 핵심 '전북 AI 데이터센터' 구축

시-전북에이아이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건립' 협약 체결 전주 덕진구 팔복동 일원 오는 2027년 완공 목표

전주지역 디지털 산업 핵심 거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전주시와 ㈜전북에이아이데이터센터(이하 ㈜JBAIDC)는 지난 20일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이정천 ㈜JBAIDC 회장, ㈜KT 전남전북광역본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등 컨소시엄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인 ㈜JBAIDC는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총 3007억원을 투입해 전주 덕진구 팔복동3가 일원(1만 1599㎡)에 수전용량 9.8M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데이터센터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JBAIDC는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전담한다. 또 시는 '전북 AI 데이터센터'가 조성될 경우 지역 내 AI 생태계 조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전북 지역 디지털 경제 혁신을 달성하고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전북 지역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시와 ㈜JBAIDC는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지역 디지털 인프라의 경

쟁력을 높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생태계 조성 위한 각종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북 AI 데이터센터 구축은 전주시가 AI 데이터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수요에 발맞춰 지역 데이터관리 경쟁력 확보와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데이터센터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

등록대상동물 한해 1세대당 최대 3마리 지원

최고 실외사육견들의 무분별한 번식에 의한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유실·유기견들의 야생성 변화에 따른 개물림 등의 주민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이에 총 6960만원 예산을 투입해 중성화 수술 비용 및 제반 비용(암컷 기준 최대 40만원(본인 부담금 10%)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전주지역 실외사육견 등록대상동물(개) 한해이다. 특히 농촌지역 맹견소유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을 우선 지원된다. 이후 예산 범위 내 후순위(민간 동물보호시설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시는 보다 많은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위해 1세대당 실외사육견 최대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동물정책과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생명체공유문화관광' 먹고·자고·놀고·체험 협약

농·수·축·임·업 융복합 6차산업 지역민 채용·상생모델 구축

전주시에 농·수·축·임·업 융합한 '생명체공유문화관광' 6차 산업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은 새로운 관광·여가시설 조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동욱 전주 부시장과 류병덕 ㈜이에프지 대표는 지난 18일 '생명체공유문화관광(물고기마을)'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추진되는 '생명체공유문화관광(물고기마을)'은 전주시 새로운 관광 미래형 6차 산업 융합 사업으로서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여가문화·유식공간 제공이 핵심이다. 협약에 의해 전주시는 사업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이에프지는 관광시설 조성 위한 사업비 투자를 지원하며 지역관광·경제활성화·활력에 기여한다. 특히 협약 중요 내용에는 ㈜이에프지 물고기마을 시설 조정 후 운영 인력 채용



윤동욱 전주 부시장과 류병덕 ㈜이에프지 대표는 지난 18일 '생명체공유문화관광(물고기마을)'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주시>

시 전주시민 우선 채용을 전제로 한 지역 공동체를 구성한다. 이로 인해 전주시-㈜이에프지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미래형 신 성장 동력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시는 국내 최초 물고기 콘텐츠 관광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류병덕 박사의 물고기마을은 3대에 걸쳐 지난 50여년 동안 운영되어 오다 지역 개발 관련 속에 멈춰 섰다. 하지만 물고기마을 '생명체공유문화관광' 협약에 의해 복원 운영 시 전주시 신산업관광 도약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관련해 물고기마을 류병덕 박사는 "지역

역민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전주시에 귀농·귀촌·체류형 워터가 활성화되어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물고기마을은 관광지는 연간 약 1500만명에 달하는 전주한옥마을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경유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체류형 관광 플랫폼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는 "보고, 즐기고, 느끼는" 전주시 체류형 관광지로 이어진다. 방문객들의 먹고·자고·놀고·체험 관광은 감성과 인성을 함께 회복하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살맛 나는 세상 구현" 비전이 담겨 있다. 물고기마을 '생명체공유문화관광' 6차 산업 조성사업은 3차년 단계로 추진되며 약 10만평 규모 부지에 총 3000억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1차 개장은 2027년 10월경이다. 본 사업 운영시 전주한옥마을을 관광객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전주시 연간관광객 3000만명 시대가 열릴 "전주시 대한민국 최고 관광도시 도약"을 기대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전주의 맛'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

완산구 외식업협회 쌀 1톤 기탁

전주시가 글로벌 관광 도시 도약을 위해 외식업계와 손을 맞잡고 '전주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을 서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구지부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다국어 메뉴판 지원 릴레이 캠페인' 및 '위생·친절 서비스 실천 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했다. 결의대회 주요 내용은 △정결하고 안전한 주방 환경 조성 △밥은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 제공 △적정 가격 및 투명한 가격 표시 등이다. 시는 이날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주의 맛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국어 메뉴판 지원 릴레이 캠페인' 시 작을 알렸다. 지원캠페인은 전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전주의 맛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영·중·국어(간체, 번체)·일본어가 병기된 다국어 메뉴판 제작을 지원하고 업계 전반에 확산시키는 운동이다. 또 지원캠페인은 공무원과 외식업협회, 전주지역 음식점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다. 이 자리를 통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시 완산구지부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쌀 1톤(10kg 100포)을 전주시에 기탁했다. 기부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영업 여건 속에서도 외식업 영업주들이 심심일만 뜻을 모아 마련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한편 '위생·친절 서비스 실천 결의대회'는 지난 19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진행됐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대·중소유통 간 상생협력 협약

대형마트 노하우 전수 및 상생 마케팅 추진 등 협력 모델 발굴

전주지역 대형마트와 동네슈퍼가 상생의 길에 한뜻으로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지난 20일 전북전주수퍼마켓 협동조합과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

회, 롯데마트 전주점, 이마트 전주점, 홈플러스 전주효자점과 '전주시-대·중소유통 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전주 부시장실에서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근 부회장, 지역 대형마

트 3사 지점장 등 대·중소 유통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해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가 공존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대형마트 내

'지역상생존' 구축을 통한 중소유통 PB상품 임점 및 홍보 지원 △대형유통사의 운영 노하우 전수 및 공동마케팅 추진 △협약의 원활한 이행과 지속 가능한 성과 관리를 위한 정례회의체 구성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세정 서비스' 제공

재개발 현장 지방세 상담 등 세무행정 서비스 중심

전주시가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세정 서비스' 첫걸음으로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의 세무 행정 서비스 제공은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세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9일 2200세대 이상 규모로 추진 중인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현장에 방문해 바로 뛰는 세무 행정을

실시했다. 아울러 시의 세무 행정 서비스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 현장 지방세 상담과 기업 애로 해소 위한 현장 중심 세무 행정 서비스 중심으로 제공 된다. 특히 시는 이번 상담에서 건설 및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세 신고·납부 절차와 주요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실무적인 이해를 도왔다. 더불어 기업이 세무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이주여성 생활 속 소방안전교육 실시

아시아 이주여성 센터 이용자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진행

전주덕진소방서가 다문화가정 공간인 아시아 이주여성 센터 이용자들의 생활 속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캄보디아 및 베트남 출신 9명의 교육생들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체험 중심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 주요내용은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요령과 119 신고 요령 등이다. 이번 맞춤형 교육은 포용적인 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나라별 언어로 구성된 소방 안전교육 책자를 배포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2025년 총



39,859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시민 안전의식 향상과 재난 대응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소방안전교육 체계 정립 △맞춤형 교육 △소방안전교육 미래 기반 강화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편 교육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불법소각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지난 20일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안전 교육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업은 파쇄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여성농업인 등 취약 농가 영농부산물 처리 불편 해소와 불법소각 방지 통한 산불 예

방,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날 파쇄지원단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전·후 안전수칙 교육과 파쇄기 안전사용법 실습 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자원화와 불법소각 방지 발대식과 파쇄 현장 시연도 진행됐다. 영농부산물은 농업 활동 과정에서 발

생하는 부산물(고춧대, 갯대, 콩대 등)이며 그동안 노지 적치나 불법소각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농업 현장에서 영농부산물을 파쇄하고 농지에 살포해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파쇄지원단은 청년농업인 등 10명으로 구성돼 2개 조로 운영되며 트랙

터 부착용 파쇄기 등을 활용해 농업 현장에서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이어가게 된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40ha 규모로 추진되며, 영농부산물 파쇄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경작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확대 운영

월 최대 3만원 치료비 지원

전주시보건소는 '정신건강 으뜸도시 전주'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치매약 처방 당일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 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시 자체 예산을 별도 투입해 기존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소민 기자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70억원 예산을 투입했으며 연간 약 7300명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치매환자 및 가족은 치매진단코드와 치매약명기 기재된 처방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전북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사업' 시행

전주시는 올해에도 '2026년 전북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군 자체 보상금 외에 실질적인 수술비와 위로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처음 추진됐다. 제도는 군복무 청년과 그 가족들에게 든든한 '심리적·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인(육·해·공군, 해병대)과 상근 예비역 등이다. 반면 타 시·도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더라도 주소지가 전주시라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하지만 별도의 보장제도가 마련된 직업군인이나 출퇴근 복무가 가능한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전주시 청년이면 입대와 동시에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전역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또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과의 중복 보상도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손꼽힌다. 주요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5000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골절·화상 발생 위로금 등으로 구성돼 군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보장한다. /정소민 기자

전북TP '순창·김제·장수·남원' 연고 산업 육성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목적 내달10일까지 모집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2026년 시·군연구산업육성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사업은 전북 내 주요 인구감소 지역인 △순창군 △김제시 △장수군 △남원시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사업은 지역 특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참여 모집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전북TP는 이 기간 동안 지역 연구 자원을 활용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유망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정

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군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 해당 시·군이 협력해 추진하는 부처협업프로젝트이다.

특히 인구 소멸지역 내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제품 개발 컨설팅 △시제품 제작 △마케팅 △시험분석·인증 △기술지도 △공정개선 △패키지 지원 등의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다각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지역 경제와의 실질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공고일 기준 순창·김제·장수·남원 내에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사진=전북테크노파크>

사업 신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상세 지원 요건 및 공고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공지사항 또는 SMTECH 홈페이지에서 사업



<사진=전북농협>

전북농협(주)케비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기부 문화 확산 앞장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지난 20일 전주시 소재 (주)케비젠을 방문해 임직원대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행사는 기업 임직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설명과 올해 변경된 내용 및 추가 혜택을 알리고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농협 총괄본부장과 케비젠 신홍식대표,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함께 전북살뜰 나눔도 진행했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발전은 물론, 연발정산 세제혜택 및 우리 농축산물 담배 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농민전심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전북농협은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세미나 개최

꽃시장 동향 및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지난 20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기후변화 등 내외의 여건 변화 속에서 전북 화훼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도내 화훼생산자,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화훼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국내 화훼산업은 이상기후로 인한 일조 부족과 한파 등 기상변동성 확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 증가, 그리고 온라인 중심 소비 확산과 같은 유통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꽃시장 동향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생산·유통·소비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 논의되었다.

발표를 맡은 한국농수산대학 박노복 교수는 MZ세대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 온라인·구독형 꽃 소비 확대, 감성·가치 중심 상품화 전략 등을 제시하며, 화훼의 가공 및 패션·라이프스타일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원وة과 임주락 팀장은 "상황에서 전북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제품 개발과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신



<사진=전북농기원>

소득 화종 발굴과 함께 디지털 기반 유통 대응,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화훼농가의 소득 안정과 산업 경쟁력

전북신협 경영평가 "종합대상 전주삼천신협"

경영성과 공유·시상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허동욱)는 지난 2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2025 경영평가 및 2026 사업설명회'에서 전주삼천신협(이사장 최태일)이 종합대상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전북신협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경영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2026년 새로운 경영방향을 잡게 된다.

전북신협 이사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실무책임자 그리고 수상자를 포함한 16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2025년 한 해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조합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허동욱 전북지역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협중앙회 이사 겸 신협 전북지역협의회 양준제 회장의 환영사 그리고 고영철 중앙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2부에 순서에는 경영평가에 대한 시

상이 진행됐으며, 전북 경영평가에서 전주삼천신협이 종합대상을 차지했다.

2025년 각 군별 대상은 이리신협, 서신협, 전주호성신협, 무주반딧불신협, 대산신협이 수상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포함하여 총 33조합이 수상했으며, 개인시상부문에서는 우수임직원 21명이 중앙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전국 경영평가에서는 전주삼천신협(2군 1위), 무주안성신협(6군 1위), 무주반딧불신협(6군 1위), 전주호성신협(5군 3위) 그리고 예수병원신협(적정조합 1위 특별상)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허동욱 본부장은 "녹록치 않은 대외 환경에도 값진 결실을 보여준 2025년 전북신협 임직원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2026년에도 전북신협 70조합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농관원-전북도 '공익직불제 광역협의회' 실시

직불금 지급 체계 강화 부정수급 점검 뜻 모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한중현, 이하 전북농관원)은 지난 20일 전북농관원 회의실에서 '농관원 지자체 공익직불담당자 광역협의회'를 실시했다.

본 협의회는 전북도청, 14개 시·군 농관원 사무소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직불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광역협의회에서는 농관원과 전북도

청, 시·군 관계기관은 직불 신청 홍보, 의무교육 이수율 재고방안,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등 사례를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 했다.

특히 농관원과 지자체는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올바른 신청,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농업인이 감액 없이 직불금을 100% 받도록 돕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실경작자 중심의 직불금 지급 체계를 강화한다.

또 부정수급 사전 점검에 대한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데 뜻을 모았다.

전북농관원 한중현지원장은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사진=전북농관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직불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



<사진=건설협회 전북도회>

건설협회 전북도회, 제2회 운영위원회 개최

예산 등 심의 의결

소재철 회장은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라는 대형 호재가 지역 건설업계의 실질적인 일감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며 "급증할 산업단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산단 4·9공구의 조기 발주를 적극 건의했으며 "양질의 일감 확보와 적정 공사비 지급,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추진해 지역건설업계 경쟁력 향상과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6년 제2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도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은행-네이버페이, 디지털 결제 환경 개선 MOU 체결

전략적 소상공인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준원)이 네이버페이(이하 Npay, 대표이사 박상진)와 'Npay 커넥트'를 기반으로 한 전북도내 디지털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Npay에서 운영하는 'Npay 커넥트'는 카드, QR, NFC, 페이스사인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다.

협약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결제 인프라 디지털 전환 지원 △Npay 연계 간편 결제 환경 구축 및 소비 콘텐츠 제공 △JB카드-'Npay 커넥트' 공동마케팅 추진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전북은행은 모바일 플랫폼 '속뱅크'에 'Npay 커넥트' 온라인 신청 채널을 마련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단말기 도입을 확대하고 결제 인프라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영업점 방문 없이 속뱅크에서 'Npay 커넥트' 신청부터 상담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전북은행과 Npay는 'Npay 커넥트' 단말기를 활용해 사업장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현재 Npay 커넥트는 전주사랑상품권(대지카드)을 포함한 다양한 결제수단을 지원하며, 매장에서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기능을 연계해 방문객이 리뷰 작성, 쿠폰활용, 주문 등을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손쉽게 리뷰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유입



<사진=전북은행>

확대 및 마케팅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JB카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도 추진한다.

도내 'Npay 커넥트' 가맹점에서 JB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초3 돌봄 전국 1위... 예산 확보 총력

초3 참여율 72.5% 전국 최고... 작년 민원 교훈 삼아 선제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처음 도입된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사업에서 전국 1위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빚어졌던 프로그램 부족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한 결과다.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정성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전북 지역 초등학교 3학년의 돌봄·교육 참여율은 72.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58.8%)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 같은 성과는 현장의 불만을 수용해

발 빠르게 대처한 전북교육청의 기획력이 주효했다.

지난해의 경우 돌봄 정책이 1·2학년 위주로 운영되면서 3학년 학생들이 수강할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했다.

1~3학년의 하교 시간이 겹치는 날이 많았지만, 방과후 교실이 저학년 위주로 쏠리면서 3학년 학부모들의 거센 민원이 빚발쳤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점을 주시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선 학교에 3학년 전용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보를 주문했다.

그 결과 올해 1·2학년 참여율은 90%로 예년 수준(91%)을 유지한 반면, 3학년 참여율은 기존 65%에서 72.5%로 대폭 상승했다.

참여율이 상승하면서 발생한 예산 공백은 추경으로 메운다.

교육부가 당초 예측한 참여율 60%를 기



<사진=전북교육청>

준으로 예산을 교부함에 따라, 70%를 넘긴 전북은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1차 추경에 부족분을 신청한 상태로, 참여 학생 전원에겐 차질 없이 바우처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 미래교육과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새롭게 시작하

는 바우처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한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 무척 기쁘다"며 "질 높은 프로그램 확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하는 돌봄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1회 검정고시 내달 4일 시행

1046명 응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험 장소와 유의사항을 지난 20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올해 첫 검정고시는 내달 4일 치러진다. 전북교육청은 응시자 편의를 위해 전주기전중, 군산중, 익산여중 등 도내 6개 권역에 시험장을 분산 운영한다.

이번 시험에는 초졸 76명, 중졸 182명, 고졸 788명 등 총 1046명이 지원했다. 온라인 접수자는 이날부터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서 수험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8시 40

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을 마쳐야 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초졸은 흑·청색 볼펜) 지참이 필수다. 특히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며 소지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 처리된다.

합격 기준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최종 합격자는 5월 8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김낙훈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응시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통해 본인이 배정받은 시험장 위치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험 당일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고창군, 코리아둘레길 사업 본격 추진

고창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조창환)은 2026년 코리아둘레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서해랑길 권역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코리아둘레길 사업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AIoT 기반 스마트의 지역주민 거점 공간화 △외국인 및 지역주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걷기 프로그램 추진 △유원기관과 연계한 '테마가 있는 서해랑길' 기획 및 운영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코리아둘레길 홍보 사업 등이 추진된다.

고창군을 관통하는 서해랑길 41~43코스는 세계자연유산인 고창 갯벌과 천년 고찰 선운사, 갈마재길을 잇는 총 52.1km의 구간이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7가지 보물을 간직한 고창의 매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걷기 여행길로 손꼽힌다.

조창환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는 "코리아둘레길은 고창을 대표하는 핵심 관광 자원"이라며, "지난해의 우수한 성과를 동력 삼아 올해도 다채로운 사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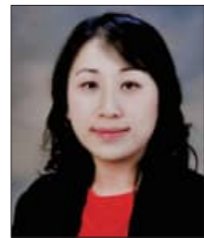
/고창=백종규 기자

원광대 최유임 교수, 대한작업치료학회장 연임

현장 중심 교육 및 학술적 위상 제고

원광대학교는 보건교과대학 작업치료학과 최유임 교수가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학회 학회장으로 연임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학회를 이끌어온 최



최유임 교수

그는 앞서 파킨슨병 재활 프로그램인

교수는 현장 중심 교육 확대와 학술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다시 학회장직을 수행한다.

그는 앞서 파킨슨병 재활 프로그램인

'LSVT-BIG' 자각 과정을 도입해 치료사들의 실무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교수는 새 임기 동안 아동과 지역 사회, 보조공학, 운전재활 등 세부 분야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임상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비 작업치료사를 위한 표준화 교육과정을 정립하고, 고령화 및 장

애인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최 교수는 "회원들이 제감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작업치료가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 전문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현대, 미드필더 김예건 준프로 계약 체결

전북 U15 금산중 입단 당시부터 화제 모은 유망주

전북현대모터스FC가 구단 유스 출신의 김예건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를 향한 행보를 이어간다.

전북현대 U18전주영생고에 재학 중인 미드필더 김예건과 준프로 계약을 맺었다고 20일 공식 발표했다.

전북 현대는 2008년생 공격 자원 김예건을 준프로 선수로 등록하며 유스 육성 시스템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김예건은 전북현대 U15동대부속금산중(이하 전북현대 U15) 입단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던 선수로, 또래 연령대에서

뛰어난 기량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온 유망주다.

전북현대 U15 시절부터 전국 단위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전북 유스 시스템 속에서 성장하며 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이후 전북현대 U18로 올라온 뒤에도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며 전북 유스 내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연령별 국가대표팀에서의 활약도 돋보인다.

대한민국 U-17 대표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 중인 김예건은 2025 AFC U17 아시안컵과 FIFA U-17 월드컵 등 주요 국제무대에서 '중원 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연령별 대표팀의 주축선수로 성장해왔다.

특히 김예건은 경기 영향력과 공격 전개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향후 전북N팀 전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북 현대는 유소년 단계에서 검증된 선수를 조기에 성인 무대에 연결하는 '전북유스-전북N팀-전북A팀 연결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A팀 자원을 배출하려는 미션과 비전을 제시해왔다.

이번 계약 역시 이러한 육성 철학의 연장선으로, 유망주에게 조기 프로 경험을 제공해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김예건은 전북N팀 훈련 및 일정에 참여하며 단계적으로 프로 무대 적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사진=전북현대>

'전북도 관광스타트업 공모' 참여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까지 '202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스타트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 관광산업의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 대상은 창업 단계에 따라 예비, 초기, 성장, 지역상생 단계의 총 4가지로 구분되며, 총 17개사 내외를 선발한다.

사업 유형은 △관광 편의 제공 서비스, △지역특화 실감형 관광콘텐츠 △관광인프라 △관광디텍 △문화예술융합 총 5개 유형 중 한 개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3일부터 3월 26

일 16시까지이며, '투어라즈(touraz.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4월 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차등 지원된다. 또한 재단은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홍보 및 판로 개척, 관광 비즈니스 확장-연계 프로그램 우선 참여권 등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다양한 '실무형 성장 패키지'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전북 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선거홍보물! 인쇄물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전략 입이다.

Design Plan Digital photography Editorial Design Printing

선거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 합니다.

홍보물의 완성도가 후보의 첫 인상을 결정 합니다.

6.3지방선거 ONE-STOP 선거 홍보 제작팀



Tel_063.226.5888
E-mail_jhchoi3075@daum.net



Tel_063.254.0056~7
E-mail_hi056@hanmail.net



Tel_063.251.0987
E-mail_ap0987@daum.net



정읍시, 농업시설물 온도저감 자재 지원...내달 3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시설하우스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차광도포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농작물 피해 예방에 나선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폭염 빈도가 잦아지는 가운데, 이번 사업은 뜨거운 하우스 지붕에 차광도포제를 발라 내부 온도를 효과적으로 떨어뜨려 작물의 생육 저해를 막고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 관내 시설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다. 총 사업비 6400만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제곱미터(㎡)당 600원의 기준 단가를 적용해 시에서 50%를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추진된다.

다만, 자연재해에 대비한 내재해형 규격을 갖추지 않은 비규격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4월 3일까지 사업 대상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최근 잦은 폭염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설원예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차광도포제 지원 사업을 통해 여름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고교생 대상 진로 특강 미래 산업 인재 육성 강화

익산시가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이리공업고등학교에서 '2026 고등산학관 커풀링 취업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이해하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게임형 프로그램을 통해 2010년부터 2030년까지의 산업 흐름을 예측하며 IT·반도체·에너지 등 시대별 유망 산업의 변화를 직접 분석하고 학습했다.

특히 배터리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직무 탐색이 이뤄졌다. 배터리 셀 설계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연구·설계 분야를 비롯해 공정 기술과 품질 관리 등 제조 현장의 다양한 직무를 살펴보는 구체적인 진로 방향을 탐색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강은 익산의 인재들이 지역 우수 기업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GO! 군산 섬해진미' 관리도 편 성황리 종료

군산시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고군산군도 관리도에서 진행한 체류형 미식 관광 프로그램 'GO! 군산 섬해진미'의 올해 첫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가 고군산군도의 풍부한 섬 자원을 활용해 추진 중인 체류형 해양 미식 관광의 일환으로, 어촌 현장 체험과 지역 식문화를 결합한 군산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여행은 관리도의 자연과 미식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관리도 주민이 차려낸 섬 밥상 △통발 설치 및 해루질 등 어촌 체험 △직접 채취한 해산물로 활용한 요리 강좌(쿠칭 클래스) △관리도의 풍경을 만끽하는 섬 트래킹 등에 참여하며 지역의 삶과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관광객은 "관리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직접 접은 해산물로 음식을 만들어본 경험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며 "단순한 관광을 넘어 섬의 삶을 공유하는 진정한 로컬 미식 여행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군산, 경제 생태계 조성 2(題)

익산시 "청년 창업 기업 키운다"

익산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해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2026년 익산형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2026년 익산형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TIPS 연계형)' 참여자를 내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로컬창업과 기술 기반 창업을 동시에 육성해 청년들이 익산에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익산형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지역 특화 자

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익산형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기술 기반 창업 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기업당 평균 3,000만 원 규모의 기술 고도화 지원금을 제공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창업 기업의 유형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청년들이 익산에서 창업의 성과를 체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협업화 지원사업'과 '사회적 가치 확산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연대와 협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윤리 시민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와 '사회적경제 한마당'도 기획·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인

식을 제고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지역사회 공헌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자생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이현헌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나해 정부 지원 감소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재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관내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매출 3억 이하 영세 상인 대상 최대 120만 원 환급

익산시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의 카드수수료 환급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카드수수료 환급은 손님이 카드로 결제할 때 가게 주인이 카드회사에 내는 수수료를 시에서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받을 수 있다.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120만 원까지는 익산사랑상품권인 '다리로움'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돕는다.

단, 유흥업소나 도박 등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익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만 하면 돼 편리하다.

특히 접수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열흘 동안은 '10부제'를 실시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맞춰 신청

날짜를 나누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3일에는 끝자리 3번이, 24일에는 끝자리 4번이 신청하면 된다.

4월 2일부터는 번호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자격과 매출액 등을 꼼꼼히 검토해 5월부터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인구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심의

군산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영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인구정책위원회, 인구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2025년 인구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인구 증가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유출과 출생아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주

거·돌봄이 연계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군산시는 생활 기반 중심의 인구정책을 추진한 결과, 청년 고용 확대와 주거 안정, 돌봄 서비스 강화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삶의 만족도 또한 점차 상승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군산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은 5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아이 키움 기반 강화 △청년 정착 기반 구축 △포용적 인구 확대(외국인·생활 인구) △고령사회 대응 및 지역 균형 △생활 기반 확충으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시행계획은 △결혼·출산·양육 진화 환경 고도화 △청년 순유출 감소 및 유입 기반 확대 △초고령사회 대응 및 인구 확대 △생애주기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주요 사업으로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 '다자녀 가구 패밀리카 지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청년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신중년 취업 지원 확대', '외국인 정착 통합지원' 등을 추진해, 아이키움과 청년 정착을 핵심 전략으로 인구구조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민 부시장은 "군산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인구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윤리 시민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와 '사회적경제 한마당'도 기획·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인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현장 대응력 강화

읍면동 담당자 대상 권역별 순회 교육

군산시는 오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분사업' 시행을 앞두고, 읍면동 담당자들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슬로건으로, 20일부터 24일까지 중앙동·성산면·수송동 등 3개 권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27개 읍면동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해 사업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

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 재택의료센터 등 유관기관이 강사진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으로 운영돼 실용성을 높였다.

교육은 △통합돌봄 신청·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실무 지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법 △의뢰 절차 △건강보험공단 서비스 및 통합관정 절차 △재택의료센터·치매안심센터 연계 서비스 △사례 중심 서비스 계획 수립 및 민원 대응 방안 등 현

장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이 복지·의료·요양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을 갖추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26년은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장 실무자의 전문성이 곧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로 이어지는 만큼, 권역별 교육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정읍시>

정읍시, 장수 축하 물품 지원 '호응'

에어컨·전동침대 등 배달

정읍시가 올해 100세를 맞이한 지역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꼭 필요한 물품을 맞춤형으로 선물하는 '장수 축하 물품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나해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들은 쾌적한 주거 환경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공기청정기, 제습기, 벽걸이 에어컨, 온수 매트, 이불 세트, 의류, 전동 침대, 욕창 예방 매트리스, 성인용 기저귀, 이동 번기, 건강식품

등 총 11종의 실용적인 품목 가운데 최대 3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자 50명 중 지남 1~2월 집중 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 물품을 맞춤형으로 선물하는 '장수 축하 물품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어르신들의 장수 유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들은 쾌적한 주거 환경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공기청정기, 제습기, 벽걸이 에어컨, 온수 매트, 이불 세트, 의류, 전동 침대, 욕창 예방 매트리스, 성인용 기저귀, 이동 번기, 건강식품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찾아가는 청년 생활·문화' 참여기관 모집

내달 3일까지

군산시는 청년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체감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책 ON: 찾아가는 청년 생활·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관(기업)을 4월 3일까지 모집 중이다

이번 사업은 바쁜 일정 등으로 청년센터 방문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문가가 직접 기관과 기업, 학교 등 현장을 찾아가 맞춤형 교육과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군산시 관내 기관(기업), 고등학교, 대학교 등이며, 소속 청년(재직자 및 재학생) 10명 이상 참여

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운영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기관(기업)에는 약 3시간 내외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군산시 주요 청년정책 안내 및 청년 애로사항 청취를 포함한 필수 과정과 함께, 재무관리, 멘탈케어, 힐링 프로그램, 자기계발 등 다양한 선택 과정 중 1개를 선택해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신청 기관과의 일정 협의를 통해 3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현장에서 수렴된 청년들의 의견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필요 시 전문가와 연계 등 후속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RISE 교육협력' MOU 체결

지자체-대학-직업계고 맞손

정읍시는 지난 20일 전북과학대학교 및 관내 직업계고 3곳과 손잡고 지자체와 대학, 고등학교를 하나로 잇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맞춤형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대학, 고교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고 다가오는 RISE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의 RISE 사업이 주로 지자체와 대학 중심으로만 추진되던 것에 따라 중소기업까지 교육 연계 모델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지역 인재

양성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향후 RISE 사업의 공동 기획 및 운영을 시작으로 공동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시설 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맞춤형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직업 교육과 대학 교육을 매끄럽게 연계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정읍시는 RISE 사업을 통해 지역 교육 기관과 지자체가 동반 성장하는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운영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수강생 30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농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영농을 목적으로 정읍시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또는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예비 농업인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에 따라 주소지가 읍·면 지역인 경우 해당 농업인상담소에, 동 지역인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본격적인 교육은 오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농촌지원과 관계자는 "신규 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지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 핵심 SOC 사업 집중 건의

심덕섭 군수, 국토부 면담... 서해안 철도 등 국가차원 추진 요청

고창군수가 지난 19일 오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서해안 철도를 비롯한 지역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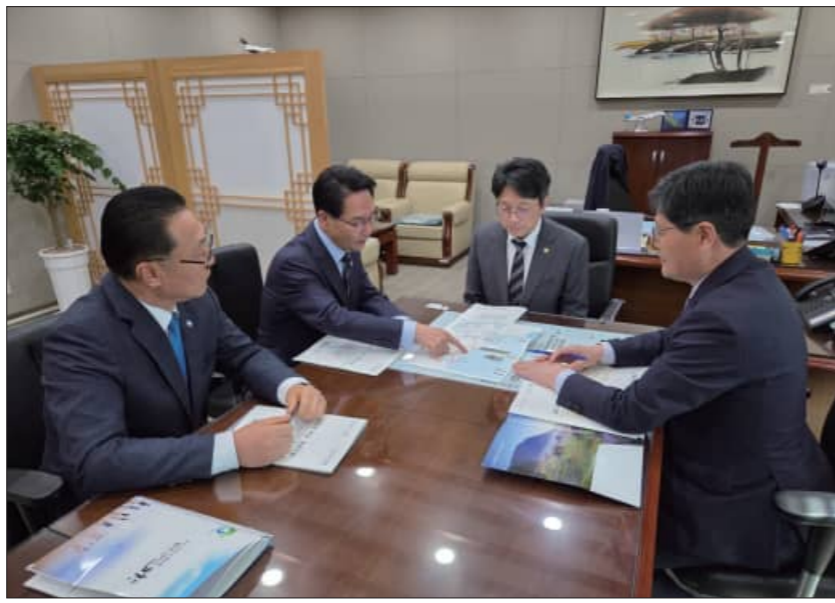
특히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도 타운홀미팅에서 서해안철도 건설사업과 노을대교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이후 이뤄진 후속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창군은 최우선 과제로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새만금에서 목포까지 약 110km를 연결하는 국가 핵심 철도 사업이다. 서해안철도는 단순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도로사업도 함께 요청했다.

△고창읍 우회도로(국도23호선) 개설 △국도22호선(공음~상하) 시설 개량 △국도77호선(동호~금평) 우회도로 개선사업은 상습 정체 해소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인프라



심덕섭 군수가 지난 19일 국토부 제2차관을 만나 지역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창군>

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사업인 △주상~공음 국지도 15호선 확포장 사업과 △고창~담양 고속도로 연결사업도 건의에 포함됐다.

특히 고속도로 사업은 원전 인접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응형 교통 인프라로서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재 국토부 산하 익산국도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노을대교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교량 공법 조기 확정과 총사업비 증액 및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건의했다.

노을대교는 고창~부안을 연결하는

서해안 관광벨트 핵심 축이다.

노을대교는 대통령 타운홀미팅에서도 언급된 바 있어 국가 차원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서해안 철도와 노을대교에 대한 정부의 협력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제는 국가계획 반영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의사업들이 반영될 경우 서해안권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지역기반 비자 정착지원금 지원

비자 취득 외국인 대상 1인 30만원 지급

김제시는 지역기반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인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기반 비자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특화형 비자(지역우수인재(F-2-R), 외국국적동포(F-4-R), 숙련기능인력(E-7-4, E-7-4R))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 인력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김제시 지역기반 비자 추천을 통해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다.

비자 취득 후 1개월 이상 김제시에 거주한 경우 1인당 3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 인재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 장기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및 세부 지원 요건은 시

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 김제시청 투자유치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기반 비자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 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은 지역 인구 감소 대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국인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에너지공단 '그린홈' 통해 온라인 접수

고창군이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정부가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는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접수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서

온라인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태양광 3kW 설치 기준 개소당 130만원을 지원하며 총 36개소 4680만원 규모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아닌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nr.energy.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국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되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6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공식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창군은 주택 전기료 절감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신청 접수가 지자체가 아닌 에너지공단을 통해 통합 관리되는 만큼,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를 알아야 한다"며 "최근 정부 사업을 사칭한 허위 광고 사례가 빈번하므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전동화 개조 등 지원

부안군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며 지원 항목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사업이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교체 사업은 올해 종료될 계획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은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가 사업 대상이다.

전동화 개조 가능 건설기계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신청 기간 내 접수 건에 대해 우선순위를 적용해 선정할 예정이다.

/부안=은봉기 기자

우선순위는 1순위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2순위 영영용, 3순위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이며 4순위 선착순 접수 차량이다.

상세한 지원 금액과 절차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부안군청 5층 환경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사진=부안군>

부안군립도서관, 코딩 공모사업 선정

전북 군단위 도서관 첫 사례

부안군립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는 2026년 이야기기가 있는 코딩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2024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군 단위 도서관 가운데 3년 연속 선정된 첫 사례다.

이야기가 있는 코딩은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 뒤 이를 코딩으로 표현해 보는 독서·소프트웨어 융합 프로그램이다.

이번 군립도서관의 프로그램은 독서를 기반으로 생성형, 대화형 AI를 활용한 다양한 그리기, 시나리오 활동과 코딩 원리를 체험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초등학교 4-6학년を対象으로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5월 중 군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부안=은봉기 기자

김제시, 원평천 수변 정화활동 실시

'세계 물의 날' 맞아

김제시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원평천 일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하며 물 환경보전과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하천의 환경을 개선하고 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그린리더, 자연보호협회 등 시민단체 회원 및 환경과와 자원순환과 직원 등 약 60여명이 참여해 원평천 약 1.2km 구간을 중심으로 하천 주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세계 물의 날은 1992년 제47차 유

엔총회에서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정·선포된 날로, 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물 자원의 보전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한 이번 정화활동이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환경보호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과 물 관리 노력을 통해 깨끗한 물환경 조성과 모두가 누리는 물복지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책 읽는 고창, 올해의 책' 선정 27일까지 선호도 조사

고창군도서관이 오는 27일까지 2026 '책 읽는 고창,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군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의 책'은 4개 분야(어린이, 청소년, 일반문학, 비문학)로 지난 2월 군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방문접수를 통해 144권이 추천도서로 접수됐다.

이후 고창군도서관 사서직원들이 후보도서로 76권을 선정했고, 2차 심의로 지난 13일 고창군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의 책 후보 도서 21권을 선정했다.

△어린이=나쁜 일이 있어도 나쁜 날은 아니야(정문정), 긴간밤(루리), 가장자리(신순재), 내가 나라서 정말 좋아(김지현), 마음여행:잃어버린 나의 마음을 찾아서(김유강)

△청소년=눈지의 렌(최상희),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정연철), 스티커(김선미), 소리를 보는 소년(김은영), 체리새우:비밀 글입니다(황영민)

△일반문학=모음(양귀자),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황보름), 절창(구병교), 안녕이라 그랬어(김애란), 혼노노(성해나), 제철행복(김신지)

△비문학=마음의 기술(안엘렌클레르), 짓다:과재한 건축론(곽재환), 위로의 미술관(진병관), 여덟다어(박용현), 청춘의 독서/특별증보판(유시민) 등이다.

고미숙 고창군 문화예술과장은 "군민들과 함께 책을 선정하고 읽는 과정에서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고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라며 "더 많은 군민이 이번 선호도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통합사례회의 개최

김제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19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보건소 3층)에서 위기가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제1차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보건·복지·보육 분야 실무자를 포함해 총 10인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기구다.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 아동의 사례에 대한 공동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지원 방향과 서비스별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외부 슈퍼바이저로 초빙된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광혁 교수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별 최적의 서비스 지원방법을 제시하고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과 자문을 제공해 회의의 전문성을 높였다.

김숙영 교육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팻티켓 홍보 캠페인 전개

부안군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해돋이마루 지방청원과 관내 주요 산책로 일원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팻티켓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무단 배변, 목줄 미착용 등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홍보 내용은 일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팻티켓 5가지 수칙으로 반려견 목줄 착용, 배변 즉시 수거, 관리의무 준수, 맹견 책임 관리,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권오범 축산과장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모든 반려인의 책임감 있는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반려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부안군, 31일까지 풍수해 위험지역 접수

부안군은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를 위해 재해우려지역 주민참여 신청접수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위험도에 따라 우선 점검·응급조치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 변동성이 커지면서 생활권 곳곳에서 침수·붕괴 위험이 반복될 경우에 대비해 행정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체감 위험지역을 주민 참여로 발굴해 선제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보 대상은 침수·유실·해일·붕괴·고립 우려지역, 산사태·급경사지 위

험구간, 소하천·하천 범람 및 풍수장애 우려지역, 방재시설·해안시설·공사장·저수지 등이다.

또 위험하다고 느끼는 장소라면 제한 없이 제보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부안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통해 신청서를 받아 담당 공무원 이메일(altairone@korea.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보는 군 안전총괄과에서 확인 후 위험도를 판단하고 우기 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통제·안내표지 설치 등 선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안=은봉기 기자

춘향제, 선재스님 '사찰음식 미학' 선포

선재스님 참여 사찰음식 특별전 행사 앞두고 남원 방문 현장 점검 '남원 전통자산·사찰음식 접목'



선재스님

사찰음식의 거장 선재스님이 제96회 춘향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사찰음식 특별 강연 및 전시'를 앞두고 지난 18일 남원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마쳤다.

이번 방문은 오는 5월 축제 기간에 개최될 행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시 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세부 기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선재스님은 행사장인 예루원 내 '몽춘원'을 직접 둘러보며 공간의 정취와 관람객 동선을 세심하게 확인했다. 특히 스님은 과거 APEC 정상회의의 만찬

당시 남원 목기를 활용해 한국 사찰음식의 정갈함을 세계에 알렸던 특별한 인연을 언급하며 "이번 춘향제에서도 남원의 전통 자산과 사찰음식이 어우러지는 최고의 미학을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본 행사는 5월 4일 관람객을 맞이한다. 먼저 '비움, 자연, 느낌, 계절'을 주제로 한 전시에서는 남원 목기와 전통 다기가 조화를 이룬 테마별 사찰음식을 선보이며 한국 전통 식문화의 정수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맛, 사찰음식에 깃들다' 특별 강

연에서는 사찰음식에 담긴 철학을 전하며, 사회자와 함께하는 대담을 통해 '흑백요리사' 비하인드 스토리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춘향제 관계자는 "세계 무대에서 남원의 가치를 알렸던 선재스님이 다시 남원을 찾아 축제를 빛내주시는 만큼 기대가 크다"며, "이번 행사가 춘향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96회를 맞이하는 춘향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춘향의 맛, 세계를 매혹시키다'라는 주제로 남원 광한루원 및 요천 일원에서 펼쳐진다.

/남원=정하복 기자



<사진=남원시>

남원 지리산 활력타운 '첫 삽' 안전기원제 열어

총 410억 규모 공모사업 청년·귀농귀촌 복합공간

남원시는 지난 19일 운봉읍 용산리에서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과 함께, 무사고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경식 시장, 김영태 의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및 관련 기관 단체장, 운봉읍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업의 성공과 안전을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은 2023~2024년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 등 7개 부처의 공모사업(총 사업비 410억)에 선정돼 시작됐다. 활력타운의 구성은 단독주택 부

지 45가구, 공동주택 42가구의 주거공간 조성, 체육관, 돌봄센터, 커뮤니티 시설 및 청년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복합레지던스와 창업공간을 조성한다.

기공식과 함께 진행된 안전기원제에서 참석자들은 공사현장의 무재해와 안전한 시공을 염원했다. 남원시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현장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사고없는 완벽한 시공을 다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날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에서 "지리산 활력타운은 지역소멸위기에 대응에 나아가 지속가능한 정주기반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철저한 현장관리와 안전관리에 힘쓰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문화예술 창작 지원 '지역문화진흥기금' 공모

남원시가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총사업비 3,000만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남원시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인과 단체, 그리고 미래 예술계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분야는 문학(시·소설·수필 등), 시각예술(회화·조소·사진 등), 공연예술(음악·무용·연극 등), 전통예술(제례·창극) 및 다원예술 등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른다. 선정된 개인에게는 최대 200만 원, 단체에는 최대 400만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발간비, 전시비, 공연비 등 창작 활동에 필요한 직접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특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 또는 사무실을 둔 개인이나 단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은 오는 3월 27일까지다. 다만, 올해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진행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결핵예방의 날 맞아 찾아가는 검진·집중 홍보 진행

순창군은 '제16회 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되는 '결핵예방주간' 동안 군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검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순창군 역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65세 이상 환자 비중이 각 각별한 관리와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거나 치료를 중단할 경우 증상이 악화되고 전파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결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옥외 현수막과 전광판을 활용해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전통시장과 공공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거리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 찾아가는 경로당 결핵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세계 물의 날' 기념 용진읍서 줄기 캠페인

완주군이 2026년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모두를 이롭게, 세상을 품는 생명의 물'을 주제로 20일 용진읍 신봉초등학교에서 '줄기'(건너 뛰어 쓰레기를 줍는 활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물의 소중함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완주군이 주관하고 군민과 사회단체 등 60여 명이 참여해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수자원 보호의 의미를 되새겼다.

매년 3월 22일인 '세계 물의 날'은 1992년 제47차 유엔총회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정부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군민 모두가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물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 개막 '열전'

21~29일 9일간 공설운동장서 선수·관계자 1만 명 방문 기대

순창군이 초·중·고·대 및 실업팀을 아우르는 전국 규모의 소프트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며 지역 스포츠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공설운동장 소프트테니스장 일원에서 제47회 회장기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정인선)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박경만)가 주관하며,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순창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포츠 대회 유치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외부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14년 연속 순창군



<사진=순창군>

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순창군과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대회인 만큼, 순창군의 소프트테니스 인프라와 운영 역량에 대한 전국적인 신뢰가 그 만큼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회 기간 동안 약 1,2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순창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누적 방문 인원은 1만 명에 이

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소상공인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은 지속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소프트테니스 메카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2026 농특산품 축제 부스 참여 접수

지역 농업인·가공업체 등 대상 특산물·차별화 상품 우선 선정

남원시는 '2026 남원시 농특산품 축제'에 참여할 부스 판매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제96회 춘향제'와 연계해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월곡공공 일원에서 펼쳐진다. 시는 관내 생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한자리에 선보여 방문객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홍보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남원시 관내 농업인, 생산자 단체, 농식품 가공업체 등이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신선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특히 남원의 대표 특산물이나 차별화된 상품을 보유한 농가나 단체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7일까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joson9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입점 업체는 품목의 적정성, 상품성,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축제 기간 동안 판매 부스를 제공받아 자사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행사가 소비자와의 직거래 접점을 넓히는 것은 물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특히 이번 축제는 대통령 특별 지시에 따라 시행되는 사안인 만큼 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조사를 통해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종훈 부군수는 "체계적이며 정확한 조사와 정비가 이뤄져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TF 가동

부군수 단장...한 달간 일제조사 대통령 특별지시 따른 집중 정비

완주군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근절하고 청정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완주군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유 시설 정비 특별팀(TF)'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19일 이종훈 부군수 주재로 특별팀 첫 회의를 열고 불법 시설물 정비와 수변 환경 재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하천과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해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다.

이종훈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팀은 한 달간 관내 하천 및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



<사진=완주군>

천 44개소, 소하천 295개소, 세천 152개소, 구거 292km 등으로 군 전역의 물길을 촘촘히 살필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 대집행까지 병행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비는 대통령 특별 지시에 따라 시행되는 사안인 만큼 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조사를 통해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종훈 부군수는 "체계적이며 정확한 조사와 정비가 이뤄져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식목일 맞아 편백 100그루 식재

고산면서 개최...170여명 참석 군, 올해 42만본 조림 사업 추진

완주군이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 행사를 고산면 남방리 일원에서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유익식 군의회 의장, 군의원, 공무원, 완주군산림조합, 숲사랑봉사단, 고산면 주민 등 170명이 참석해 산림의 소중함을 나누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직접 삼을 들고 산림수종인 편백나무 묘목 1,000여 본을 0.5ha 면적에 정성껏 식재하며 산림의 가치를 되새겼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내 나무 갖기' 문화 확산을 위해 포포나무와 다육식물 총 200여 주를 나누어주며, 식목일 행사를 한층 더 빛냈다.

군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올해 총 140ha 규모에 42만 본의 묘목을 조림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2026년 사회조사 조사요원 모집

관리자 2명·조사원 18명 선발 세부역할로, 조사요원은 관내 810개 표본가구 방문을 통한 현장 조사, 조사표 작성 및 제출, 조사 내용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사관리자는 조사원의 활동을 지도·관리하고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책임감 있게 조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며, 통계조사 경험자나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은 우대된다. 또한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관련 증빙 제출 시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까지이며,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평가통계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조사요원은 관내 810개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 조사표 작성 및 제출, 조사 내용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사관리자는 조사원의 활동을 지도·관리하고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책임감 있게 조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며, 통계조사 경험자나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은 우대된다. 또한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관련 증빙 제출 시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까지이며,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평가통계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새 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삼례시장·중학교 주변서 진행

완주군과 완주군청소년유해환경감사단 '세이프틴'(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 새 학기를 맞아 최근 삼례시장과 삼례중학교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유해업소 접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점검에는 완주군과 완주군청

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해 완주경찰서, 완주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해 힘을 모았다.

합동 점검단은 삼례중학교 정문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삼례시장 주변 상가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스티커 부착 여부와 주류·담배 판매 금지 등 유해업소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한 상가 업주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협조를 구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임실군, 농촌여성 정보화 능력 향상 위한 디지털 교육 진행

임실군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추어 농촌 여성들의 정보화 능력을 높이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일 한국생활개선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26년 생활개선회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임실군과 장수군 생활개선회 임원을 포함한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디지털 활용 기술과 자기 계발을 위한 이미지 브랜딩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순공으로 배우는 디지털 키오스크 세상'을 통해 무인 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게 실전 활용법을 전수하고, △'인상을 바꾸는 기술, 나를 위한 인성 색 찾기' 강연을 통해 개인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근로자 300명 대상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장수군은 지난 18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군 소속 현업 근로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다양한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분기별 1회씩 연간 총 4회에 걸친 체계적인 집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날 교육은 △근골격계질환 예방 △주요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 △화재·폭발사고 예방 등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안전교육으로 구성돼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하얏트 브랜드 제휴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이 글로벌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진안군과 글로벌 호텔 체인 하얏트(Hyatt)는 지난 20일 진안군청에서 '진안군-하얏트 브랜드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군 단위 최초'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

군에 따르면 현재 마이산 북부 일원에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이며, 완공 이후에는 하얏트 브랜드 호텔로 운영될 예정이다.

100실 규모의 호텔은 오는 8월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안군은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계기로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아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 서비스업(호텔·음식점업 포함)의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의 두 배 수준으로, 하얏트 입점 시 약 2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간 5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이산과 진안용담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을 잇는 치유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인근 생태자원과 연계한 친환경 생태관광 명소를 조성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무주 만든다!

'무주형 아이돌봄' 사업 추진 20일 아이돌봄비 집담회 정서 치유프로그램 진행

무주군이 '무주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군은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돌보미 건강검진비와 함께 월 4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별도의 처우 수당도 지급한다.

지난 20일에는 무주군 가족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2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1차 아이돌보미 집담회 및 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심을 모았다.

이번 집담회는 아이돌보미들의 직무 역량 강화 및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영상을 시청하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집된 내용과 개선 사항을 공유하는 등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함께 진행된 '정서 치유 프로그램(봄꽃 화분에 심기)'은 아이돌봄 과정에서 쌓인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주도할 목적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정성철 무주군 가족센터장은 "돌보미 선생님들의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이 곧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아이도, 부모도, 돌보미 선생님들도 모두 행복한 무주형 아이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무주형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3월 기준 62가정, 105명)으로,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간 운영 확대 및 돌봄 특화 프로그램 등과 함께 지역 내 맞벌이 돌봄·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지역 돌봄 안전망'이 될 전망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스마트 경로당' 구축 본격화

초고령사회 대응 경로당 15개소 추가 도입

임실군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43.7%를 넘어섬에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기존 대면 중심의 복지 서비스만으로는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복지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농촌지역 어르신들은 정보 접근성과 사회적 교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어, 디지털 기반 복지 환경조성이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복지환경 조성을 목표로 단계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임실군은 지난해 관내 경로당 5개소에 양방향 화상회의 장치와 IOT(사물인터넷) 기반 화재감지기기를 설치했으며, 이 중 2개소에는 이상음원 감시장치를 시범 도입했다.

해당 장치는 비명, 고성 등 12종의 이상 음원을 감지해 통합관제센터로 즉시 전송해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오는 3월 말까지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스마트 스튜디오'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자간 영상통신 기반으로 구축되는 스마트스튜디오는 복지관과 경로당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건강·여가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타 지역의 경우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실시간 건강검진, 노래교실,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참여형 콘텐츠' 운영을 통해 어르신 참여율과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임실군 역시 보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아동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어르신 간 교류 활성화와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올해 관내 경로당 15개소를 추가 선정해 양방향 화상회의 장치와 IOT 기반 화재감지기기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계적인 스마트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로당을 단순한 휴식 공간에서 벗어나 디지털 소통, 학습, 건강 및 안전 관리 기능을 갖춘 지역복지 플랫폼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한국유전자종축센터 착공식 개최

(주)티바이오텍, 올해 7월까지 20억 투입 계남면 신전리 일원 건립

장수군은 지난 20일 (주)티바이오텍에서 계남면 신전리에 본격적인 종축 연구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유전자종축센터' 조성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장수군이 미래형 축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국유전자종축센터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최한주 군의회의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청 경제부지사, 송규봉 한국종축개발협회 전북본부장 등 주요 내빈과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주)티바이오텍은 올해 7월까지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축산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량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종모우센터와 연구소와 종모우사 등 연구개발 기반 시설도 구축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착공식은 장수군 축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중



장수군은 지난 20일 (주)티바이오텍에서 계남면 신전리에 '한국유전자종축센터' 조성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요한 출발점이다"며 "유전자 기반의 첨단 축산업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국유전자종축센터를 착공하는 (주)티바이오텍은 천전면에 소재한 바이오 축산 전문기업으로 수정란 판매와 종축 컨설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착공식은 장수군 축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중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농자재·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

임실군이 과수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과수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과수 재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수농기계 지원사업 등에 총 107백만원

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농기계는 △승용예초기 △고소작업차 △SS기 △과수선별기 △동력운반차 등이다. 고품질 과수 생산과 관리에 직접 활용되는 장비들이다.

지원 규모는 농가당 최대 1천만 원(보조금 기준)이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기종을 구입할 경우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한다. 재원 비율은 군비 50%, 자부담 50%다.

군은 사업 신청을 받아 총 13농가를 선정 완료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과수 생산 기반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500원 통학 택시' 눈길

야간자율학습 학생들 안심기가

무주군 '5백 원 통학 택시'가 화제다. 지난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500원 통학 택시'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야간자율학습 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학생

이용 학생들이 회당 500원만 부담하면 되며, 운영은 지역 내 개인 택시와 법인택시 소속 기사들이 맡아 학교에서 학생들의 거주지까지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이 모 학생(무주고, 19세)은 "야

간자율학습이 끝나면 밤 10시 정도 되는데, 집이 설치면라 늦은 시간에는 택시가 아니면 가기 힘들다"라며 "5백 원만 내면 편하고 안전하게 데려다주시니까 부모님도 안심하신다"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통학 택시 운영에 앞서 지역 내 7개 중·고등학교 학생 중 통학 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면서

노선버스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학생들의 거주지를 고려해 34개 노선을 편성하고 기사를 배정하는 등 운영 절차를 마쳤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C형간염 예방관리 사업 시행

조기검진·치료 연계로 중증 간질환 예방

장수군은 C형간염의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C형간염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C형간염은 혈액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감염자의 70~80%가 만성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간경변이나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다만 최근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통해 95% 이상 완치가 가능해 조기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150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집중 검사 기간을 별도로 운영해 고위험군

을 중심으로 신속한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체검사는 고위험군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대상자는 △C형간염 확진자 가족 △과거 혈액제제 수혈자 및 주사기 공동사용 경험자 △의료기관 종사자 △만성 간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 위험요인 보유자 △50대 이상 군민 중 건강취약계층(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 독거노인 등)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는 추가 확진 검사를 안내받게 되며, 검사비는 무료로 지원된다. 또한 전문의 진료와 치료로 연계하고 치료 여부 및 완치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심민 군수는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관리감독자"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실군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군민과 근로자가 모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중대재해 예방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감독자 역할 강화·산업재해 예방

임실군은 지난 17일 임실군청 농민교육장(5층)에서 현업부서 관리감독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8시간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 정책 방향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실무 △밀폐공간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감독자 교육 환경과 정서적 후원까지 든든한 뒷받침을 해주셨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온라인 학습 기기 부재로 교육 격차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 아동 3명에게

최신형 컴퓨터를 전달했으며, 24개월간 15명에게 1인당 매월 5만 원의 '디딤씨앗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우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부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 지역의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후원까지 든든한 뒷받침을 해주셨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온라인 학습 기기 부재로 교육 격차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 아동 3명에게

최신형 컴퓨터를 전달했으며, 24개월간 15명에게 1인당 매월 5만 원의 '디딤씨앗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우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부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 지역의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후원까지 든든한 뒷받침을 해주셨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무주군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아동 지원 '맞손'

취약계층 아동 15명에 24개월간 매월 5만원 장학금 전달

무주군은 지난 20일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딤씨앗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온라인 학습 기기 부재로 교육 격차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 아동 3명에게

최신형 컴퓨터를 전달했으며, 24개월간 15명에게 1인당 매월 5만 원의 '디딤씨앗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우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부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 지역의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후원까지 든든한 뒷받침을 해주셨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온라인 학습 기기 부재로 교육 격차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 아동 3명에게

/무주=최희호 기자



익산 송학동 새마을부녀회, 봄 맞아 깨끗한 거리 만들기

익산 송학동 새마을부녀회가 봄을 맞아 깨끗한 마을만들기에 팔을 걷었다. 송학동은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순임)가 새봄맞이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부녀회원들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겨우내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을 수거했다. 김순임 회장은 "새봄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송학동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단체와 협력해 환경정비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학동 새마을부녀회는 새봄맞이 환경정비 활동뿐만 아니라 밀반찬 나눔, 삼계탕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 여산면지사협,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활동

익산시 여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정노·이승복)는 지난 20일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봄을 맞아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을 정비하고, 주민이 마을을 함께 가꾸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정기회의를 마친 후 지역 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와 담배꽂초 등을 수거하며 환경 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여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승복 민간위원장은 "위원들과 동네를 직접 청소하며 봄을 맞이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돌보는 일은 물론 깨끗한 여산 만들기에 도 꾸준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정노 여산면장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리배산라이온스클럽, 익산시에 학습용 가구 기탁

취약계층 아동 학습환경 개선 지원

익산시에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지난 20일 '이리배산라이온스클럽(회장 이철우)'이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자녀들의 학습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책상과 의자 등 학습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이철우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마음을 모아 준비했다"며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은정 복지국장은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이리배산라이온스클럽에 감사하다"며 "물품은 안정적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는 지난 20일 이리배산라이온스클럽(회장 이철우)이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익산시>



전북은행, 김제시에 'JB희망의 공부방' 오픈

김제시는 전북은행 주관으로 지난 20일 정성주 김제시장, 최중구 전북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JB희망의 공부방 제227호(금구지역아동센터, 제226호(난산지역아동센터))' 오픈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JB희망의 공부방'은 전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다음해 1개소당 1천만원을 들여 아동들의 학습공간을 정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책상 및 의자, 도배 및 장판, 벽걸이 에어컨 교체 등 공부방을 새롭게 단장해 아동들에게 쾌적한 학습 공간을 조성해 주고 있다. 전북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김제시에 'JB희망의 공부방'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은행 최중구 부행장은 "JB희망의 공부방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장수 장계면, 행복나눔 제빵 봉사활동 펼쳐

지역사회온기 확산

장수군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9일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에서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행복나눔 제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제빵 과정에 참여해 정성을 담은 빵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성껏 만든 빵은 장수군 장계면 소재 밀알그룹홈과 더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전달됐으며,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 임재성 민간위원장은 "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고창 무장읍성농악단, 취약계층 위한 성금 기탁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농악단이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 무장읍성농악단은 지난 19일 무장면사무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무장읍성농악단은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행사 참여를 통해 지역문화를 알리는 홍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이웃돕기 성금 전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성지신 단장은 "단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장면에 기탁된 성금은 전라북도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관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읍신태인읍 새마을부녀회, 밀반찬 나눔 봉사

정읍시 신태인읍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연희)는 지난 19일 관내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밀반찬 만들기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매년 진행되는 봉사활동으로 관내 홀몸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김치와 고기 등 밀반찬을 직접 조리하고 정성껏 포장해 관내 홀몸 어르신 40세대를 직접 만나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챙겼다. 박연희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마을부녀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희정 읍장은 "새마을부녀회에 감사드리고 전달해드린 밀반찬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문화가 지역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남원 죽향동-광양 다압면, 자매결연 상생 교류 활발

남원시 죽향동은 지난 20일 자매결연지인 광양시 다압면을 방문해 지역 간 우호 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이은주 죽향동장을 비롯한 동장단과 직원이 참여했으며, 방문단은 다압면 대화축제 현장을 찾아 축제를 함께 즐기며 자매결연지의 우애를 다졌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제96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양 지역은 지난해 다압면 이장단이 춘향제 대표 프로그램인 '대동길놀이'에 직접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던 점을 되새기며, 올해 역시 다압면 주민들을 대동길놀이에 초대하여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도 이어졌다. 죽향동과 다압면 직원들은 상생 발전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금 각 100만원을 상호 기탁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전북의 미래를 함께한 15년, 전북타임스와 함께!"

JBT

전북타임스 창간 15 주년 을 맞이하여,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Tel 063-282-9601 Fax 063-282-9604

〈一事一言〉



탈원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책임 없는 정치'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탈원전 논쟁의 본질은 원전이 아니다 ...

최근 유럽 정치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의미 있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독일의 탈원전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역시 "원자력을 외면한 것은 전략적 실수였다"고 말했다. 정책의 오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장면이다. 정책은 언제든 틀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오류를 인정하고 평가하는 정치 문화는 국가 정책을 더 성숙하게 만든다. 실패를 인정하는 정치가 약한 정치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다. 이 지점에서 한국 정치의 모습은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긴다. 한국 역시 몇 년 전 탈원전을 둘러싼 거대한 정책 변화를 경험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탈원전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조기 폐쇄를 추진하며 원전 축소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

려도 적지 않았다. 원전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자재 기업의 경영 위기와 기술 인력 유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일부 원전 관련 기업들은 신규 프로젝트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고 산업 기반 자체가 위축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원전 산업은 발전소 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 개의 기자재 기업과 기술 인력, 연구개발 네트워크로 이어진 장기 산업 생태계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자 정책은 다시 정반대로 방향을 틀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확대 정책을 선언하며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해외 원전 수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정책 변화 자체가 아니다. 정책은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 상황이 변하면 방향을 바꾸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진짜 문제는 대한 체계적인 평가나 정치적 책임 논의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유럽 정치권은 탈원전 정책의 판단 오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책을 추진했던 정치 세력 내부에서도 반성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에서는 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냉정하게 따지는 논의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이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했는지, 무엇을 교훈으로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없다. 그 대신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함께 바뀌는 일이 반복된다. 정책의 연속성은 사라지고 정치적 구호만 남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나라에서 산업의 미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에너지 정책은 단기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는 분야다. 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는 데만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산업 생태계 역시 수십 년의 정책 안정성 속에서 유지된다. 정책 방향이 정권 교체 때마다 급격히 흔들린다면 기업은 투자 결정을 미루게 되고 산업은 불확실성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 최근 유럽의 에너지 정책 흐름은 분명하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대립시키는 구도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활용하는 현실적인 에너지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저전원이 필요하다

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 역시 이제는 탈원전 찬반이라는 정치적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탈원전 정책이 어떤 효과를 냈고 어떤 비용을 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보다 정책의 결과를 분석하고 교훈을 남기는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 정책 실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패를 평가하지 않는 정치 시스템에서는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에너지 구호가 아니다. 정책의 결과를 직시하고 그 책임을 논의할 수 있는 정치다. 정책보다 더 위험한 것은 책임 없는 정치다.

사설

외국인력 정책 전환 통해 정주형 숙련인력 키워야

전북 농생명 산업의 미래를 가를 열쇠는 사람, 그것도 현장에서 기술을 축적하고 지역에 뿌리내리는 숙련 인력의 확보가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전북연구원이 제안한 '전북형 농생명 숙련인력 패스웨이' 구상은 농업·농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의미 있는 제안이다. 이 모델은 농업계고 유학생(D-4-3)에서 출발해 전문대(D-2), 취업(E-7-M), 정주(F-2)로 이어지는 4단계 경로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외국인력 정책이 계절근로(E-8)나 비전문취업(E-9) 중심의 단기·단순노동 공급에 머물렀다면, 이번 제안은 교육-취업-정주를 연계한 '장기 숙련 인력 육성'으로의 전환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지닌다. 지금 전북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기계 산업단지 등 농생명 인프라를 폭넓게 구축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를 운영할 스마트팜 관리, 식품공정, 설비 운용 등의 중간기술 인력이 부족해 산업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인프라는 갖췄지만 이를 '돌릴 사람'이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 역시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부 지자체가 학생 수 감소를 막기 위해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지만 졸업 이후 이들이 어떤 산업으로 진입하고 어떤 경로로 정주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은 미흡하다. 그 결과 지역이 투자한 교육과 지원은 타지역 이동이나 귀국으로 이어지는 '누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

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을 지역 산업을 이끌 미래 인력으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전북형 패스웨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입학 전 한국어와 농업 기초를 교육하고 농업계고와 전문대에서 체계적으로 기술을 습득하게 하며 졸업과 동시에 지역 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하는 구조는 인력 양성과 산업 수요를 정교하게 맞물리게 한다. 나아가 일정 기간 근속 후 정주 비자로 전환하는 단계까지 설계함으로써 '머무는 인력'을 만들어내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모델이 정착된다면 기대 효과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농생명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전북이 구축해 온 산업 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정주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 공동체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물론 과제도 적지 않다. 교육기관과 기업,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비자 요건 완화와 정주 지원 정책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개별 사업이 아닌 '통합 패스웨이'로 인식하고, 농업 인력정책·외국인 정책·인구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접근이다. 전북이 선제적으로 이 모델을 정부에 제안한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 정책을 넘어 국가 농정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농촌 소멸과 인력난이라는 이중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제는 사람을 키우고 머물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북형 농생명 숙련 인력 패스웨이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 열전

논개사당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분류 - 유적건조물, 사우
-지정일 - 1981년 4월 11일
-시대 - 1954년 창건
-소재지 -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산3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윤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6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시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밀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주시국 010-8826-6049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간절 / 이재무

삶에서 '간절'이 빠져나간 뒤
사내는 갑자기 늙기 시작하였다
활어가 품은 알같이 우글거리던
그 많은 '간절'을 누가 다 먹어치웠나
'간절'이 빠져나간 뒤
몸 쉬 달아오르지 않는다
달아오르지 않으므로 질실하지 않고
질실하지 않으므로 지성을 다할 수 없다
여생을 나무토막처럼 살수는 없는 일

사내는 '간절'을 찾아 나선다
공같이 뛰는 탄력을 다시 살아야 한다



시인 약력 : 1958년 충남 부여 출생.

한남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국문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83년 '삶의문학', '문학과사회' 등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제2회 난고문학상과 제15회 편운문학상, 제17회 이육사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선달그림, 온다던 사람 오지 않고, 별초, 몸에 피는 꽃, 한 사람이 있었다 등이 있다.

시선집으로는 오래된 농담, 길 위의 식사, 얼굴 등과 시평집으로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핀다면, 산문집으로 생의 변방에서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현재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제9회 글로벌 시니어문화 선발대회 개최, “시니어들의 도전이 시작된다!”

“꿈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신노년의 아름다움을 찾다”

원의 전통문화와 신노년의 건강한 에너지를 전파하는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젊은 세대에게는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 동년배들에게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롤모델 역할을 수행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번 대회가 어르신들의 삶이 하나의 예술이 되는 순간이 되길 바란다”며, “남원에서 시작된 이 황금빛 도전이 전 세계 시니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전의 문은 지난 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열려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니어는 남원시노인복지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와 남원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하는 「제10회 글로벌 시니어 문화 선별대회」가 오는 4월 30일 오후 1시 남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 대회는 단순한 미인 대회를 넘어, 세월이 빚어낸 어르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공유하는 대한민국 대표 신노년 문화 축제로 성장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10회’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더욱 확장된 글로벌 무대와 파격적인 혜택으로 전국의 시니어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편집자주)

10년의 여정, 세월의 깊이가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이름 ‘문화 선별’ 남원시와 남원시노인복지관은 ‘문화 선별’이라는 전통의 가치에 ‘시니어’의 지혜를 결합하여 2016년부터 이 특별한 여정을 이어왔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온 본 대회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여성 어르신에게 인생 2막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 왔다.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긍정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신노년 문화의 상징적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는 10주년을 기념하여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서사’를 중심으로 한층 깊이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경을 넘는 지혜의 물결... 3년 연속 ‘글로벌 문화 선별’의 위상 정립

남원의 미(美)가 이제 세계의 지혜와 만난다. 이번 대회는 3년 연속으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여성까지 문턱을 넘은 글로벌 행사로 치러지며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참가 자격은 만 60세 이상(1966. 4. 30. 이전 출생)의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여성은 만 55세 이상(1971. 4. 30. 이전 출생)부터 도전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열린 축제를 지향하는 남원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스마트 기기 조작이 낯설거나 글쓰기에 막막함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위해 구술작가를 고용하여 접수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접수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구술을 정리하여 원고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소외됨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

이러한 세심한 행정 지원은 매년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75점의 무게, ‘에세이’에 담긴 삶의 향기가 당락을 가른다

선발 방식 또한 차별화된다. 외형적인 모습보다 그분들이 살아온 ‘시간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데 집중한다.

예선 심사(4. 7.)에서는 전체 100점 중 무려 75점을 ‘에세이(삶의 감동적인 이야기)’에 배정했다. 다세대 가정이 어울려 사는 따뜻한 풍경이나 이웃과 나누는 소박한 재미, 역경을 딛고 일어난 고난 극복기 등 진솔한 삶의 기록이 가장 강력한 심사 기준이 된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도(10점)와 신노년 문화 선도력(15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선 진출자 16명을 엄선하게 된다.

본선 무대(4. 30.)에서는 예선 점수 중 에세이 점수(10점)와 현장 심사 점수(90점)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단순히 끼를 발산하는 장기자랑에 그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처할 ‘지혜’와 사회의 어른으로서 갖춰야 할 ‘품격(존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진정한 이 시대의 추앙을 가리게 된다.

시상 규모도 역대급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전년 대비 대폭 상향된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금상(100만 원), 은상(70만 원), 동상(50만 원), 특별상(각 50만 원, 2명) 등 풍성한 시상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이번엔 신설된 ‘기관 추천 포상제’는 대상 수상자를 배출한 추천 기관(전국 노인복지관 등)에 상금의 20%인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상생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제96회 문화제와 함께 비상하는 ‘지혜의 가교’

이번 대회는 남원의 자부심인 제96회 문화제 기간 중에 개최되어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에게 시니어들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대회를 통해 선발된 시니어 문화들은 본인이 보유한 전문 자격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교육강사로 참여하는 등 남

진안농협 하나로마트

신선하고 맛있는 우리농산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품 · 정량
 안전제품 공급
 유통기한 보장제

NH NongHyup 신속하고 친절하게 배달해드립니다.

정육, 야채, 과일, 수산 (도, 소매)
쌀, 잡곡, 베이커리 생활용품 일체

현금
 카드
 계좌
 모바일

결제방법: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매듭신청: (063) 433-1022

찾아오시는 길

전주행선
 진안문터
 마이와
 장사
 진안시외버스 터미널
 무주행선
 장수행선

조형원의 편의를 위해 언제든지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겠습니다.

진안농협 하나로마트 운영시간 오전 08:30 ~ 저녁 09:00

대표전화 (063) 433-1022
 정육코너 (063) 430-3655
 수산코너 (063) 430-3656
 베이커리 (063) 430-3658